

제 150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현실주의적' 문명화 노선에의 길 : 의화단 전쟁을 둘러싼 Kobe Chronicle 의 지상논쟁을 중심으로.

강연자: 유불란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유불란 박사의 세미나가 10 월 9 일 화요일 오후 12 시부터 2 시까지 국제대학원 GL 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현실주의적' 문명화 노선에의 길 : 의화단 전쟁을 둘러싼 Kobe Chronicle 의 지상논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어떠한 이념이 당대에 어떻게 받아드려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당시에 있어서 오늘날처럼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학문적 규정상 정신적, 윤리적 부분을 어우르는 거대한 체제였다. 그리고 후쿠자와의 경우에는 문명을 논할 때 어떠한 상태로서 "활발"이나 "경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기력에 의해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상태라고 여겼다.

문명론과 기독교가 결합하여 기독교적 문명화론이 등장하였는데,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서양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 의도로 오는 것이라는 악의론과 왜 저들은 목숨마져 내버리고 건너오는 걸까 하는 선의론이 대립하였다. 결국 문명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자 그들은 백성을 국민으로 만들어야 했다. 후쿠자와 유키치 역시 "인민을 교도하는 도구로서 어쨌든 유용하다"라는 말로 종교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자를 돕기 위해 목숨마져 버리고 와줬다고 하는 신뢰성이 생기고 서구문명의 도덕적 측면에서 기독교에 신뢰가 모아졌다.

사실 의화단 전쟁이란 새로운 것이 없던 전쟁이었고 유래없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처리방식은 예전것을 답습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신매체의 발달로 대중적 관심이 모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즉 이 전쟁은 문명에 의한 전쟁이어야 했다. 이는 비단 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정세상, 일본은 청일전쟁이래, 문명국으로서의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문명국의 야만적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비기독교국 일본으로서 이러한 인도적 행위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선교사들이 약탈에 앞장섰다는 문제는 선교야말로 문명화에 힘쓴다는 의견에서 돌아서 쓸데없이 긴장감을 형성시켜 통상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Kobe Chronicle 에서 확대 재생산되었던 지면상의 논쟁들을 살펴보면, "「...그런데 기독교국들은 지난해[1900] 크게 실수했다...그들[음지에 앉아있는 이들-반/미개인 지칭]은 이제 문명의 축복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건 좋지 않다. 문명의 축복이란 관찮은 거고, 게다가 상업상 한몫거리임으로. 좀 어두운 데서 보면 낮게 보일 것이다. 적절한 조명과 거리, 그리고 좀 초점을 흐려놓으면 음지의 신사들에게도 그럴듯해 보이리라. 박애, 법과 질서, 정의, 자유...기독교...약자의 보호 등등. // 이 상표는 철저히 수출용이다...외관뿐이긴 하지만 국내소비를 위해 아껴둔 우리 문명의 특별한 양식들을 참으로 매력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비록 겉포장 안쪽의 실상이란 음지의 소비자들(그의 피와 땅, 그리고 자유를 값으로 치뤄야 하지만...두 상표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몇몇 세부적인 측면에선 그렇다고도 할 수 있다.」(1901, M.Twain) 라는 등 그들이 말하는 문명화의 사명이 진정성을 가지는 것일가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옹호측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정당한 복수라는 자기 모순에 빠져들고 있었다. 좋은 동기로서 악행을 정당화하려는 선교사들은 도덕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과연 이들에게 맡기어 어떻게 문명화를 진행시킬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생겨났다.

그러나 기독교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신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본질적인 독립이 아니라는 의견이 강화되었다. 강대국에 의한 전도는, 기독교에 대한 전도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규범 등이 함께 들어오므로 기독교라는 절대적 기준에만 입각하자는 당시로서는 극단적인 주장이 생겨났다. 즉 일본인이란도 서양 기독교인보다 더 절대적인 기독교인이 될수 있다는 당시로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의견이었다.

윤치호는 Kobe Chronicle 에서 기독교와 문명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에서 그들이 부정하는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독교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선교사 약탈의 문제로 오면 앞의 의견과 상반된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였다. 선교의 사회교화적 효용만을 언급하려는 것이 윤치호의 논조였다. 윤치호의 현실주의적 문명화노선을 알 수 있는 점이다.

질의응답

문: 전공이 다르니까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의화단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강연에서 적게 다루신 것 같다.이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Kobe Chronicle 을 강연에서 주요 논점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의미부여가 더 많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답: 강연에서 선교사 논쟁 및 의화단 사건에 대해 간략화한 것은 사실이다. 여러가지 측면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 전체적 흐름만 전달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왜 Kobe Chronicle 인가에 대해서는 당대 이것이 가지고 있던 비중 때문이다. 독립신문도 다량의 해외신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이 Kobe Chronicle 이었다.

문. 오히려 일본어매체에서도 의화단사건 등을 다룬 논의가 있었다.

답. Kobe Chronicle 이 영어신문이었기 때문에 의화단사건을 다루는 것은 당연했지만, 영자신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가혹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에 전적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일본지식인들 내에서도 반발이 컸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Kobe Chronicle 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컸다고 생각한다.